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담론 분석*

조철기**

Korea-Related Discourse Analysis of High-School Geography Textbooks in Japan*

Chul-Ki Cho**

요약 : 본 연구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과 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관련 내용의 선정 근거 및 서술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두 세 개의 '근린제국(이웃국가)'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활·문화를 일본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린제국과 관련한 지역학습이 생활·문화에 초점을 둘으로써 자연환경 내용은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독도는 대부분 분쟁 가능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일부 교과서에는 시마네현의 영토로 명기하거나, 지도상에 일본의 영토로 표기 한 사례도 있다. 한국의 독특한 생활·문화로는 문자로서 한글, 사상으로서 유교, 종교로서 불교와 기독교, 의식주로서 한복, 쌀과 국, 불고기와 가위, 숟가락과 젓가락, 온돌 등에 대해 삽화를 곁들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정치·경제적 교류보다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과 스포츠 분야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리 교과서는 주로 생활과 문화에 초점을 둘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된 지리를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 지역과 일본과의 상호 비교를 통한 유사성과 차이에 초점을 둘으로써 지식과 이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타심과 공감적 이해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대안적인 지역학습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학습지도요령, 지리교과서, 근린제국, 지역학습, 생활과 문화, 유사성과 차이, 이해와 존중

Abstract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e of selection and feature of description on Korea-related content in Japanese curriculum(geography and history) and high-school geography textbooks. Japanese curriculum requires that there are two or three neighbor countries to be selected and their contents consist of life and culture and have to compare with those of japan in view of understanding and respect on similarity and difference. The content of physical environment is only dealt as factors influencing on life and culture because regional learning of neighbor countries focus on it. Dok-do is described with conflict region in most of textbooks. But some textbooks describe Dok-do with territory of Shimane-Hyun in Japan or devide like japanese territory on the map. There are described han-gul(Korean language),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han-bok(Korean clothes), rice and soup, bulgogi(Korean meat dishes) and scissors, spoon and chopsticks, ondol(Korean floor heater), etc. with the cases of specific Korean life and culture. And,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es on more cultural view increasing recently than political and economical view. Then Japanese high-school geography textbooks humanize geography because of they focus on life and culture and promote not onl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but also altruism and empathy because they focus on similarity and difference through comparison between neighbor country and Japan. This shows how to able to practice regional learning in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 이 논문은 2007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kcho@knu.ac.kr

Key Words : Japanese curriculum, geography textbooks, neighbor countries, regional learning, life and culture, similarity and difference, understanding and respect

1. 서 론

최근 교과서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교과서 중심주의적 현실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탈교과서적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매체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틀에서 탈피하려는 교육적인 주장과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우월적 위치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같이 국가교육과정에 토대하여 검인정 형태로 출판되는 체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리를 비롯한 사회 교과서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많은 내용들이 특정 담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담론에 근거하여 서술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와 태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리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충위의 자아관과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다른 나라에 대한 시선과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미지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최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이 주로 반성과 성찰에 토대한 자학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일부 우익 정치가들에 의해,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면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리 교과서는 보다 균형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외국의 사회과 교과에 반영된 한국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손용택(1996)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를 1980년대 초반(1981~1984)에 출판된 6종의 지리교과서와 1994년에 출판된 6종의 지리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관련 내용의 기술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손용택(1997)은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1980년대 초반(1981~1984)에 출판된 6종의 지리교과서와 1994년에 출판된 6종의 지리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관련 내용의 기술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형기주(2002)는 일본의 신구 지리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왜곡이나 편견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구 지리교과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진우(2006)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에서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지리A 3종과 지리B 3종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서술 내용의 특징을 일부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2007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한중일 지리 교과서에서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일부 교과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손용택과 형기주가 대상으로 했던 교과서들은 현재 학교에서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진우 연구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06년에 개정된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과 일부 출판사의 것만 채택하여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지리 교육과정과 연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석 방법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세계일보의 연구는 한국경제라는 한 단면만을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1에 제시된 2006년에 새로 개

정 출판되어 4월 신학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일본의 고등학교의 모든 자리 교과서(지리A-7종, 지리B-5종)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 관련 내용 및 담론에 대한 서술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교과서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특정 주제나 용어가 전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얼마나 자주 서술되어 있는가 하는 양적 분석보다는 교과서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저자의 서술태도 및 자료의 배열 방식 등을 통해서 추론하는 방식인 질적 접근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석에 앞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지리 역사과)을 대상으로 하여 지리A 및 지리B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선정·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지리A 및 지리B 교과서의 분석 틀은 크게 '한국의 자연환경과 영토 문제', '한국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한일 교류'라는 두 개의 범주와 각각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¹⁾

2.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²⁾과 한국 관련 내용의 선정과 조직

1)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배경과 고등학교 지리 역사과

일본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고시이후 교과서가 작성된다. 교과서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의하여 개정되며,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은 학습지도요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교과서의 개정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된다. 교과서 이외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작성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될 때마다 문부과학성이 교사 참고용으로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연구지정 학교,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교사연수 실시 등을 시행하며, 전면 실시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이행조치를 실시하게 된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30).

표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과서 목록

과목명	출판사	교과서명	저자	검정/출판 연도
지리A(7종)	二宮書店	高校生의 新地理A	山本正三 外 13人	2002/2006
	帝國書院1	高等學校 新地理A	高橋 彰 外 7人	2002/2006
	帝國書院2	高校生의 地理A: 생활·세계·미래	中村和郎 外 4人	2002/2006
	第一學習社	高等學校 地理A: 세계의 생활을 배우다.	藤原健藏 外 7人	2002/2006
	清水書院	高等學校 現代地理A: 현대세계의 동향과 제지역의 과제를 탐구하다.	山本 茂 外 14人	2002/2006
	教育出版	地理A: 지구에서 생활하다.	竹内啓一 外 9人	2002/2006
	東京書籍	地理A	矢田俊文 外 10人	2002/2006
지리B(5종)	東京書籍	地理B	矢田俊文 外 10人	2002/2006
	教育出版	地理B: 세계를 응시하다.	竹内啓一 外 9人	2002/2006
	二宮書店	詳説新地理B	山本正三 外 13人	2002/2006
	帝國書院a	新詳地理B	高橋 彰 外 7人	2002/2006
	帝國書院b	즐겁게 배우는 世界地理B	中村和郎 外 7人	2003/2006

일본에서는 세계 제2차대전 이후 1947년에 선포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7차례의 개정(1951년, 1955년, 1958년, 1968년, 1977년, 1989년, 1998년(고등학교는 1999년))이 있었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문부대신의 자문,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그리고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발표 순으로 진행되는데, 1998년 12월(초·중학교)과 1999년 3월(고등학교)에 고시된 신학습지도요령 역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6년 7월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은 주 5일제를 전제로 학교가 여유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내용을 줄이고 각급 학교의 기초·기본적 내용을 염선하며, 종합적 학습시간을 신설하고 중학교에서의 선택이수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과의 경우에도 완전 주 5일제의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의 감소,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도입, 교과에 배당되는 수업 시간의 대폭 감소라는 전체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따라 내용을 줄인다거나, 깊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다른 단원·학년·다른 학교 단계로 이행·통합한다든가 하여 내용의 정선을 피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과라는 교과 자체 내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들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2).

사회과에서는 첫째 “국제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육성”이라는 방향에서, 둘째는 “내용의 중점화와 주체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의 개선을 행하였다.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서 지리와 역사를 3학년에서는 공민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먼저 세계사A와 세계사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의 4과목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최소한 3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1989년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가 폐지되고, 지리·역사과와 공민과로 분과되어 있다. 지리·역사과는 세계사A와 세계사B, 일본사A와 일본사B, 지리A와 지리B로 구성되어 있고, 공

민과는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역사과의 통합목표는 “우리나라 및 세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생활·문화의 지역적 특색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민주적, 평화적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각과 자질을 양성한다”(文部省, 1999, 24)라고 간결하게 되어 있다.

고등학교 지리·역사과의 내용구성을 보면 A과목에서는 근·현대사와 현대의 현상 및 친근한 주제를 중심으로 체험적 활동이나 탐구 활동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는 반면, B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문적인 체계를 중시하고, 체계적이고 심화된 인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지리A와 지리B의 목표를 보면 지리A가 현대세계의 지리적 제과제를 지역성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현대 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대하여, 지리B는 현대세계의 지리적 제사상을 계통지리적, 지역지리적으로 고찰하고 현대 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A와 지리B 모두 지리적 안목과 사고방식을 길러 국제 사회에 주체적으로 사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함양함을 궁극적인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다.

2) ‘지리A’ 교과목의 한국 관련 내용의 선정과 조직

고등학교 지리역사과의 교과목은 세계사 A와 B, 일본사 A와 B, 그리고 지리 A와 B로 편재되어 있다. 지리A는 지리역사과 선택교과목 중의 하나로 표준단위 수는 2단위이다. 문부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1999, 159)에 의하면, 교과목 목표는 “현대세계의 지리적인 제과제를 지역성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현대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배양하는 것과 함께, 지리적인 안목과 사고력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배양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세계화의 진전이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쟁점 issues)를 지리적으로 고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다루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시대에 적실한 시민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목표에서도 일부 추론할 수 있듯이, 지리A의 내용 구성은 주로 쟁점 중심의 주제적인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통지리와 지지적 방법을 병행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인 내용 구성은 ‘현대세계의 특색과 지리적 기능’, ‘지역성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현대 세계의 과제’라는 2개의 대단원과 하위 단원으로서 이들 각각에 2개 또는 4개의 중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한국 관련 내용은 대단원 ‘지역성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현대 세계의 과제’의 중단원에 해당하는 ‘세계의 생활·문화에 대한 지리적 고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표 2).

대단원 ‘지역성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현대 세계의 과제’에서는 현대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제과제(쟁점들)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³⁾ 및 ‘지구적 과제에의 대처’⁴⁾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성의 관점에서 현대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리적인 안목(見方)과 사고력(考え方)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의 생활·문화의 지리적 고찰’과 ‘지구적 과제의 지리적 고찰’을 중단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세계의 생활·문화에 대한 지리적 고찰’이라는 중단원은 또 다시 ‘제지역의 생활·문화와 환경’, ‘근린제국(近隣諸國)의 생활·문화와 일본’라는 소단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근린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이라는 소단원이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소단원의 목표는 “근린

제국의 생활·문화의 특색을 추구하고, 일본과의 유사성과 차이를 지리적으로 고찰하는 시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근린제국의 생활·문화를 이해·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文部省, 1999, 180)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단원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사람들 의 생활과 문화의 특색과 동향을 그 지역의 환경조건과 관련시켜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를 지리적으로 고찰하는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류가 빈번한 가까운 나라들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근린제국’에 관한 소단원을 설정하게 된 것은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가 지금까지 국제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구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근린제국이라 함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2개 또는 3개의 국가를 선택해서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다루어야 할 국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자료 구입이 용이한가도 중요한 고려 조건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선정된 사례 국가의 학습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다른 문화를 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며, 충분한 시간을 배당하여 학습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2.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지리A 교과목의 한국 관련 단원

개정	과목명	대단원	중단원
1999년	지리A(선택)	현대 세계의 특색과 지리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상의 세계와 지역구성 연계되어 있는 세계 다양함을 중대하는 인간행동과 현대세계 친근한 지역에서 국제화의 진전
		지역성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현대 세계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의 생활·문화에 대한 지리적 고찰 지구적 과제의 지리적 고찰

이 소단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선정된 국가의 생활·문화에 관한 지리적 특성을 발견하고, 왜 그 국가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 그 국가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관련하여 고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국가의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에 관한 특색과 그 변화 등에 관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유사성과 차이를 지리적으로 고찰하는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린제국의 생활·문화를 일본의 그것과 비교·관련 시켜 이해하는 것으로, 일본과 유사한 생활·문화의 특색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배경과 요인에서 생겨난 것인가, 또는 일본과 다른 특색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하도록 하여 다른 문화를 지리적으로 고찰하는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선정 조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린제국의 생활·문화를 이해·존중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것처럼, 근린제국의 생활·문화를 이해·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다른 관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근린제국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해서 고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 선정의 원리이다.

이러한 선정 원리에 따라 7종의 지리A 교과서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중단원 및 소단원, 그리고 세부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표 3). 7종의 지리A 교과서 모두에서 근린제국으로서 한국을 다루고 있었으며, 대부분 중단원의 제목이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일본과 관련지어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帝國書院1,2에서 출판된 두 교과서는 제외). 소단원 및 주제를 보면 7종의 출판사 모두 한국의 자연, 생활과

표 3. 지리A 교과목의 출판사별 한국 관련 단원 설정

	대단원 및 중단원	소단원 및 주제
二宮書店	제2장 지역성으로부터 본 현대세계의 과제 제2절 근린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 2. 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	1. 조선반도와 일본의 자연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한국 • 안정육괴에 위치한 조선반도 • 뚜렷한 대륙성 기후 2. 한국문화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족의 특징으로서의 한글 • 유교의 전통과 그 사회적 역할 3.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집중 • 공업지역의 형성 4. 지금까지의 일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과 문화의 교류 • 재일 한국·조선인
帝國書院 1	제2부 다양한 지역의 생활과 환경 선택 제3장 근린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 1. 한국의 생활·문화	1. 한국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생활 2. 한국 산업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를 달리는 한국차 • 공업의 변화 • 농촌의 변화 3. 일본과의 교류와 이후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해지는 일본과의 연계

	대단원 및 중단원	소단원 및 주제
帝國書院2	제2부 우리의 세계를 응시하다 제2장 아문화의 공존에 관해서 생각하자 선택 1장 균린제국의 생활·문화를 관찰해 보자 제2절 한국은 어떠한 국가일까?	1.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공통점을 파악해 보자 2. 한국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식사를 할까 3. 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쇠퇴를 파악해 보자 4. 가깝고도 먼 나라로부터 진정한 이웃 국가로 5. 지금까지의 한국을 파악해 보자
第一學習社	제2편 세계의 제지역의 지역성 제3장 균린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과의 관계 사례 ② 한국의 생활과 일본과의 관계를 배운다	1. 분단된 조선반도의 사람들 2. 조선반도의 자연과 생활 3. 급속하게 변화한 한국 경제와 사회 4. 본격화한 일한의 교류
淸水書院	제2편 지역성의 입장에서 파악한 현대세계의 과제 제1장 세계의 생활·문화의 지리적 고찰 2. 균린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	1. 한국·조선민족의 생활과 문화 • 지도로부터 거리를 파악한다 • 기후의 특색을 조사한다 • 사진으로부터 생활의 특색을 읽는다 • 방의 배치로부터 생활의 특색을 읽는다 • 문자를 조사한다 2. 한국의 근대화와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 • 역사를 조사한다 • 통계자료로부터 본 경제발전 • 달력으로부터 생활을 읽는다 〈Close-up 5〉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조선인 • 재일 한국·조선인의 역사 • 공생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教育出版	제2편 지역으로부터 본 오늘의 세계의 과제 제1장 세계의 생활·문화 제2절 주변 국가들의 생활·문화와 일본 2.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과 일본	1. 대한민국(한국)의 문화와 일본 •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자 • 유교의 영향이 강한 한국문화 • 비교적 많은 기독교 교도 2.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변화하는 생활 •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생활 • 한국과 일본 〈access〉 재일 한국·조선인
東京書籍	제2편 세계의 생활·문화와 현대세계의 과제 제3장 균린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 [3] 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	1. 고난을 극복한 한국 • 식민지로부터 조선전쟁-20세기 전반의 고난의 역사- •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조개혁-20세기 후반의 급성장의 역사- 2. 한국의 생활과 문화의 독자성과 일본 • 민족 특유의 한글-한국문화의 독자성과 일본과의 공통성- • 김치와 온돌과 한복-의·식·주- 3. 한국의 국토구조와 일본과의 교류 • 서울의 일국 집중-한국의 국토구조- • 긴밀하게 된 한국과 일본-한국과 일본의 교류-

문화, 경제, 한일교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출판사(二宮書店, 清水書院, 教育出版)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심화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다른 나라를 다룰 때 다소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소단원 및 주제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3) '지리B' 교과목의 한국 관련 내용의 선정과 조직

지리A와 마찬가지로 지리B는 지리역사과의 지리 영역의 선택과목 중의 하나이며 표준단위 수는 4단위이

다. 문부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1999, 198)에 의하면, 이 교과목의 목표는 “현대세계의 지리적 사상을 계통적, 지지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배양하는 것과 함께, 지리적인 안목과 사고력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배양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지리B의 교과목 목표가 지리A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지리A가 ‘지리적인 제과제(쟁점들)를 지역성의 입장에서 고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리B는 ‘지리적 사상을 계통적, 지지적으로 고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이하다.

지리A의 내용 구성의 원리가 주로 쟁점 또는 주제 중심에 두면서 계통 및 지지적 요소를 일부 결합하고 있다면, 지리B는 계통지리적인 학습과 지지적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내용 구성의 주된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세계의 특색과 동향을 고찰하고, 지리적 인식과 탐구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질문과 탐구 방법, 지리적 안목과 사고력을 육성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을 두면서,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현대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쟁점들이 탁월한 사례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표 4의 대단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리B

의 내용 구성은 계통지리, 지지(지역지리), 쟁점(토피) 중심 등의 원리가 한 교과서에 통합적,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리B의 내용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세계의 계통지리적 고찰’, ‘현대세계의 지지적 고찰’, ‘현대세계의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이라는 3개의 대단원과 이들 각각에 3개 또는 8개의 중단원을 설정하고 있다(표 4).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관련 단원의 설정은 대단원 ‘현대 세계의 지리적 고찰’의 중단원의 하나인 ‘국가규모의 지역’, 대단원 ‘현대 세계의 제과제에 대한 지리적 고찰’의 중단원의 하나인 ‘근린제국 연구’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로 후자에서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두 개의 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단원 ‘현대세계의 지지적 고찰’의 목표는 “지역의 스케일에 따라 지역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세계를 구성하는 각 지역은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과 함께, 세계 제지역을 규모에 따라 지지적으로 파악하는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文部省, 1999, 211)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중단원은 스케일에 따라 ‘시정촌(市町村) 규모의 지역’, ‘국가규

표 4.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지리B 교과목의 한국 관련 단원

개정	과목명	대단원	중단원
1999년	지리B(선택)	현대 세계의 계통 지리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 자원과 산업 • 도시 및 촌락과 생활문화
		현대 세계의 지지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市町村)규모의 지역 • 국가규모의 지역 • 주, 대륙 규모의 지역
		현대 세계의 제과제에 대한 지리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화하여 파악하는 현대세계의 제과제 • 지역구분하여 파악하는 현대세계의 제과제 • 국가간의 연계 현상과 과제 • 근린제국 연구 • 환경, 에너지의 문제와 지역성 • 인구, 식료 문제의 지역성 • 주거, 도시문제의 지역성 • 민족, 영토 문제의 지역성

모의 지역’, ‘주, 대륙 규모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帝國書院a에서 발행된 교과서만이 이 대단원의 하위단원인 ‘국가규모의 지역’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소단원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다(표 5 참조).

중단원 ‘국가 규모의 지역’의 목표는 “세계의 국가를 사례로 해서 몇 개를 채택하여, 그것들의 지역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해서 각각의 국가를 지지적으로 파악시키는 것과 함께, 그것들을 비교·관련시키는 것을 통해 국가규모의 지역을 지지적으로 파악하는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시킨다”(文部省, 1999, 218)라고 진술되어 있다. 즉 국가규모의 사례지역을 몇 개를 채택하여 지역성을 지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례 국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국가 스케일의 사례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5가지의 유의 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⁶⁾

둘째, 대단원 ‘현대세계의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의 목표를 보면, “현대의 세계와 일본에서 채택한 제과제(쟁점들)에 관해서 넓은 시야로부터 지역성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현대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깊게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리적으로 고찰할 의의와 유용성을 알도록 하여, 지리적인 안목과 사고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文部省, 1999, 225)라고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대단원은 현대의 세계와 일본이 당면한 다양한 제과제(쟁점들)가 하위 단원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대단원은 앞에서 학습한 계통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을 적용하여 지리적 쟁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 대단원은 ‘지도화해서 파악할 현대세계의 제과제’, ‘지역구분을 해서 파악할 현대세계의 제과제’, ‘국가간의 결합의 현상과 과제’, ‘근린제국연구’, ‘환경, 에너지 문제의 지역성’, ‘인구, 식료문제의 지역성’, ‘거주, 도시 문제의 지역성’, ‘민족, 영토문제의 지역성’이라는 8개의 중단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리A와 마찬가지로 ‘근린제국연구’라는 중단원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단원 ‘근린제국연구’의 목표는 “근린제국의 생활·문화를 지역의 환경조건과 관련시켜서 파악하고, 일본과의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시키는 것과 함께, 근린제국과의 교류의 태도와 일본의 역할 등에 관해서 고찰시킨다”(文部省, 1999, 234–235)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는 지리A의 ‘근진제국의 생활·문화와 일본’이라는 중단원의 목표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 중단원 역시 근린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에서 2개 또는 3개의 국가를 적절히 선택해서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근린제국연구라는 중단원이 설정된 배경, 그리고 이 단원을 통해서 기대되는 학습의 목표 및 결과 등은 지리A의 그것과 거의 같다.⁷⁾

이러한 선정 원리에 따라 5종의 지리B 교과서에서는 표 5와 같이 한국과 관련한 중단원 및 소단원, 그리고 세부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지리A와 달리 지리B에서는 중단원의 제목이 한국과 일본을 연계하여 설정되어 있지 않고(教育出版 제외), 대한민국(東京書籍), 한국(二宮書店, 帝國書院a), 한국의 사람들의 생활·문화(帝國書院b) 등으로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단원 및 주제를 통해 볼 때, 모든 교과서들이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로 한국의 자연, 문화, 경제, 한일 교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帝國書院b에는 자연환경과 경제 부분이 없음), 일부 출판사(教育出版, 二宮書店)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심화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지리A와 마찬가지로 지리B 역시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서와 달리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소단원 및 주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리A와 지리B에서는 ‘근린제국’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근린제국에서 한국이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선정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근린제국의 사례 지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러시아 대신에 필리핀과 타이를 선정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일부 교과서(지리A, 帝國書院1; 지리B, 帝國書院a, 帝國書院b)에서는 근린제국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에서

표 5. 지리B 교과목의 출판사별 한국 관련 단원 설정

	대단원 및 중단원	소단원 및 주제
東京書籍	제3편 현대세계의 제과제 제3장 근린제국 2.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위치와 자연환경 • 한국의 인구의 편재 • 20세기 전반의 고난의 역사 • 20세기 후반의 급성장의 역사 • 한국의 국제화와 일본 • 21세기를 향한 구조개혁의 추진 • 서울 일극 집중 국토구조 • 반도로서의 독자문화
教育出版	제3편 지구적 과제를 배우다 제4장 일본과 가까운 국가들과의 관계 3.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 국가로서의 한국 • 유교의 영향이 강한 문화 •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생활 • 한국과 일본 <p>〈click〉 재일 한국 · 조선인</p>
二宮書店	제3장 현대세계의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 제4절 근린제국과 일본 2. 한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반도와 일본의 자연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 • 안정육괴에 위치한 조선반도 • 뚜렷한 대륙성 기후 2. 한국문화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족의 특징으로서의 한글 • 유교의 전통과 그 사회적 역할 3. 한국경제의 발전의 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경제성장 • 새마을 운동 • 인구의 대도시 집중 • 산업지역의 형성 4. 경제와 문화로부터 본 일한관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의 과제 • 문화교류의 새로운 조짐 • 재일 한국 · 조선인
帝國書院a	제2부 세계의 제지역 제3장 국가규모의 지역의 조사 1. 한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자연과 민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자연환경 • 민족의 문화 • 갈라진 분단국가 2. 한국의 산업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하게 진행된 공업화 • 한국 사람들의 생활 3. 교류와 이후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의 교류
帝國書院b	제4장 현대세계의 제지역과 근린제국의 조사 5절 근린제국의 연구 2. 한국의 사람들의 생활 ·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과의 공통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유사한 생활양식 • 조선반도로부터 건너 온 문화 2. 전통 문화와 그 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의 교훈 • 수도권에 확대하는 인구 3. 조선반도와 일본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령과 분단의 역사 • 지금까지의 교류

표 6. 지리A 및 지리B의 근린제국으로 선정된 사례 지역

교과목	출판사	한국	중국	러시아	필리핀	타이
지리A	二宮書店	○	◎	●		
	帝國書院1	○	*	◎		
	帝國書院2	◎	○	●		
	第一學習社	◎	○	○		
	清水書院	○	◎	●		
	教育出版	○	◎		●	
	東京書籍	◎	○			●
지리B	東京書籍	○	◎	○		
	教育出版	◎	○	●		
	二宮書店	○	◎	○		
	帝國書院a	**	○	◎		
	帝國書院b	○	***	◎		

* 중국은 '2부 2장의 세계의 제지역의 생활·문화'에 포함

** 한국은 '2부 세계의 제지역, 3장 국가규모의 지역의 조사'에 포함

*** 중국은 '4장 현대세계의 제지역과 근린제국의 조사 3절 국가규모의 지역의 조사'에 포함

학습의 순서 : ○ → ◎ → ●

이들 나라를 선정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표 6).

한편, 선정된 근린제국의 학습의 시퀀스는 대부분이 한국을 가장 먼저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지리A, 帝國書院2, 第一學習社, 東京書籍; 지리B, 教育出版)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 지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그 위치를 차츰 확장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4) 일본 지리 교과서에서의 영토 문제의 선정과 조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근린제국'이라는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의하면 지리A에서는 위치와 영역과 관련하여, 지리B에서는 영역 및 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독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먼저 지리A에서는 '지구상의 세계와 지역구조'라는

대단원의 하위 단원에서 '위치와 영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 대단원의 목표가 "지구의와 세계지도와의 비교, 약지도 그리기 등을 통해서, 지구표면의 대륙과 해양의 형성과 각국의 위치 관계, 방위, 시차 및 일본의 위치와 영역 등에 관해서 파악시킨다"(文部省, 1999, 166)로서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관해서는 세계적 관점으로부터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학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세계적 관점으로부터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의와 세계지도를 활용하여 일본을 중심적 위치에 두고 세계 각 지역과 관련된 사상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일본을 중심 둔 정거방위 도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방영토 문제, 한국과의 독도와 관련한 영토문제

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을 채택하여 국토가 가지는 의의뿐만 아니라 영토문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적확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리B에서는 마지막 대단원인 ‘현대세계의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에서 ‘민족·영토문제의 지역성’이라는 하위 단원을 설정하여 “인종·민족과 국가와의 관계, 국경,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세계적 시야로부터 지역성의 입장에서 추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지역적 특수성과 유사성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파악시켜,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지역성의 입장에서 국제협력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관해서 고찰시킨다”(文部省, 1999, 244)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민족, 영토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티벳족과 몽골 족 등 소수민족의 문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의 민족과 영토 분쟁(예를 들면, 쿠르드인과 바스크인) 등에 관해 지역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问题是 세계 각지에서 출현하고 있어 지역을 초월한 보편성을 보이는 한편, 지역적인 특수성도 보이므로 이를 함께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종·민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민족의 생활·문화를 언급할 때는 일본인의 생활·문화를 절대 시하여 그것을 척도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인종·민족에 대해서는 차별관과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각국마다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바, 그 범위와 경계의 합의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지리교과서에 동원된 한국의 자연환경과 영토 담론

1)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학교 1학년 사회 지리 영역

의 내용이 각 국가 및 지역의 자연환경(지형, 기후, 식생, 토양 등)을 고찰한 후 인문환경(인구, 촌락, 산업, 도시, 문화 등)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세계지리는 주제(토픽) 중심과 결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다. 특히, 자연지리적 내용은 주로 계통적 분야로 구성된 첫 단원에서 학습하도록 하면서 개별 국가 및 지역의 학습에 있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국가를 사례로 하여 지역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생활과 문화에 초점을 둘으로써 순수한 자연지리적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서 자연지리적 내용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을 뿐 그 프로세서나 메카니즘의 이해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발행된 지리A 및 지리B 교과서에서는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이기는 하나 별도의 절을 만들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있다. 지리A의 경우, 총 7종의 교과서 중에서 3종만이 자연지리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二宮書店이 ‘조선반도와 일본의 자연의 비교’라는 절에서 ‘한국과 일본’, ‘안정육괴에 위치한 조선반도’, ‘뚜렷한 대륙성 기후’, 第一學習社는 ‘조선반도의 자연과 생활’, 清水書院은 ‘기후 특색을 조사한다’라는 주제로 자연지리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지리B의 경우, 총 5종의 교과서 중에서 3종이 자연지리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東京書籍이 ‘한국의 위치와 자연환경’, 二宮書店이 ‘조선반도와 일본의 자연의 비교’라는 소단원에서 ‘한국과 일본’, ‘안정육괴에 위치한 조선반도’, ‘뚜렷한 대륙성 기후’⁸⁾, 帝國書院a가 ‘한국의 자연과 민족’이라는 소단원에서 ‘한국의 자연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자연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총 6종의 지리A 및 지리B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의 전체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지형과 기후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여 지진이 많다면,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의 안정육괴에 해당한다(지리A, 二宮書店, 116; 지리B, 二宮書店, 256). 기온과 강수량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후는 일본의 동북지방의 기후와 비교적 유사하지만, 유라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탁월하게 나타내고 있다(지리A, 二宮書店, 116; 지리B, 二宮書店, 257; 지리A, 清水書院, 98; 지리B, 帝國書院a, 146).

둘째, 자연환경, 즉 지형과 기후를 다루는 것은 이들의 프로세서나 메카니즘을 학습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방식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식탁에 어패류와 해초류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지리A, 第一學習社, 113). “조선반도에서는 심한 추위에 견디기 위해, 온돌이라고 불리는 마루 아래 난방 장치가 보급되어 있다. 식생활에서는 가을의 야채수확기에 고춧가루를 뿐만 김치 만들기가 일제히 시행되어, 겨울을 준비한다”(지리A, 二宮書店, 116; 지리B, 二宮書店, 257). “일본보다도 겨울의 추위가 격심한 한국은 민족의복과 식사, 주거 등에서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지리A, 清水書院, 98).

셋째, 기후와 관련하여서는 여름기온보다는 겨울기온에 더욱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겨울기온이 생활방식의 차이에 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리B 東京書籍(252)에 기술되어 있는 ‘오가사라와기단(小笠原氣團)에 의한 고온다습’이라는 내용을 제외하면, 모든 교과서들이 겨울기온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할 뿐 여름기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넷째, 지형보다는 기후에 대한 설명이 많으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지형보다 기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기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특히 낮은 겨울기온으로 인한 의식주의 특수성을 많이 조명하고 있다.

다섯째, 동일한 출판사의 경우 지리A와 지리B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지리B의 내용이 좀 더 심화되어 있다. 二宮書店의 경우, 지형에 대한 설명의 경우 지리B에서는 지리A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두만강과 압록강

같은 국경하천, 리아스식 해안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백두산 일대로부터 흐르는 두만강과 압록강은 국경하천이 되고 있다. (중략) 반도의 동부를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달리고 있지만, 서부와 남부에는 평야와 구릉이 펼쳐져 있다. 중부 이남의 서안과 남안에서는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고 있다”(지리B, 二宮書店, 256)

2) 영토를 둘러싼 종립적 시선과 자국 중심 시선 사이의 긴장과 갈등

한일간의 영토 문제에 대한 내용은 지리A와 지리B의 ‘근린제국’ 단원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습지도요령에 의하면, 지리A는 첫 대단원인 ‘지구상의 세계와 지역구조’에서 ‘위치와 영역’과 관련하여 일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리B에서는 마지막 대단원인 ‘현대 세계의 제과제의 자리적 고찰’에서 ‘민족·영토문제의 지역성’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지리A의 ‘위치와 영역’에서는 주로 일본과 관련한 영역 문제에 한정된다면, 지리B의 ‘민족·영토 문제’는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영토 문제가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이 그들 영토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북쪽으로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방영토(北方領土) 문제이고⁹⁾, 그 다음으로 남쪽으로 중국과의 남지나해의 센카쿠열도(尖閣諸島) 문제¹⁰⁾, 서쪽으로는 한국과의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그림 1). 그림 1의 좌측 그림(지리B, 二宮書店, 316)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분쟁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도가 분쟁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림 1의 중앙(지리A, 教育出版, 11)과 우측(지리A, 第一學習社, 17) 부분은 각각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영토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교과서에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는 집중

조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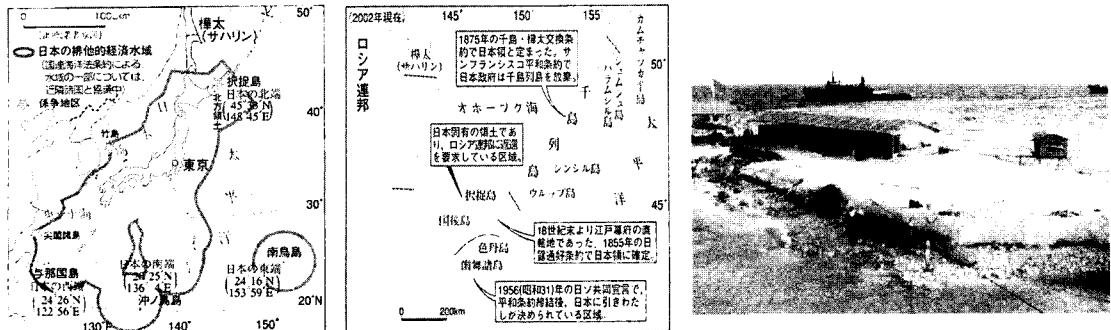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관점에서 본 분쟁지역

(출처 : 지리B, 二宮書店, 316; 지리A, 教育出版, 11; 지리A, 第一學習社, 17)

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인 지도와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한일간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한일간의 영토 문제로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는 지리A 7종 중에서 4종(第一學習社, 清水書院, 教育出版, 東京書籍), 지리B 5종 중에서 1종(二宮書店)이다.

지리B(二宮書店)와 지리A(第一學習社)에서는 본문의 내용이 아닌 지도를 통해 영토 문제를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리B(二宮書店, 316~317)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으며, 센카쿠열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한 북방영토의 4개 섬은 자연식생과 야생동물 등 자연환경 면에서 훗카이도와 연속성이 강하며, 주변의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안 어민들에 의해 어장으로서 이용되어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A(第一學習社, 17)에서는 1996년에 어업전관수역에 더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했지만, 한국과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고, 중국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있기 때문에 이를 해역은 잠정수역이 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65년에 한국과의 사이에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당시는 국제적으로 영해 3해리(5.6km)가 채택되었다. (중략) 국제연합은 해양의 국제적 질서의 조정을 계속해서, 1994년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국

제연합 해양법 조약)이 발효되었다. (중략) 일본에서도 1996년 7월 20일에 이 조약이 발효되고, 동시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법이 시행되어,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바다의 날(海の日)」로 하였다. 이 조약의 발효에 의해 한일 쌍방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종료되었다. 200해리의 설정에는 영토가 문제가 되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재연되었다. 1998년에는 신협정이 서명되었지만, 쌍방의 어업의 손해는 적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해와 영해를 둘러싼 국제적인 규칙(rule)의 변화는 어업을 통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지리A, 第一學習社, 17)

하지만 일부 교과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관점에서 매우 편향되게 서술되어 있다. 지리A(清水書院, 21)의 내용을 보면, “일본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하보마이(齒舞諸島), 시코탄(色丹島), 쿠나시리(國後島), 에토로후(擇捉島)의 북방영토(北方領土)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점령 하에 있어왔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가 점령해 오고 있고, 현재 일본은 이를 여러 섬들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간의 대화를 행해오고 있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이를 지역의 사람들과의 교류 등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島根縣)에 속한 독도에는 한국과의 영유권문제가 있다. 오끼나와현(沖繩縣)의 센카쿠열도(尖閣諸島)에 있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북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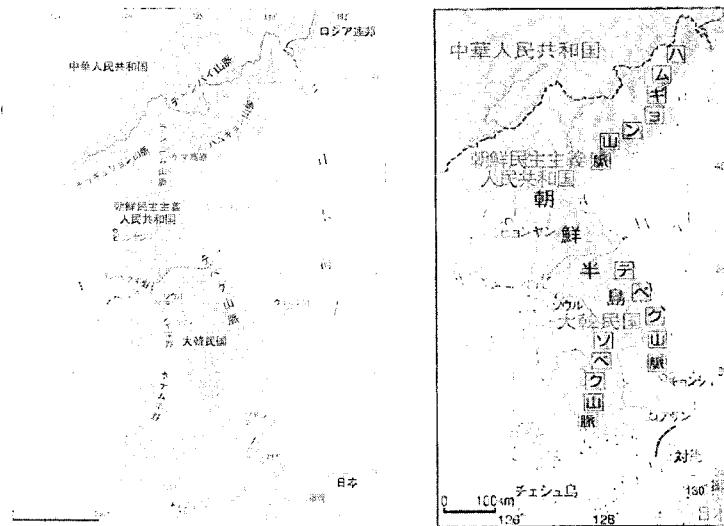


그림 2. 독도의 관점에서 본 상이한 두 지도

(출처 : 지리A, 東京書籍, 120; 지리B, 帝國書院a, 146)

토의 경우 일본의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리A(教育出版, 11)에서도 북방 영토가 자신의 고유의 영토로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각각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끼나와현의 영토인 것으로 명기함으로서 마치 자신의 고유의 영토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

한편, 일본 고등학교 지리A와 지리B 교과서의 근린 제국 단원에 제시되고 있는 한국 관련 지도에서 대부분이 분쟁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인해 독도와 관련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지도상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그림 2의 우측 지도)¹¹⁾, 東京書籍(지리A, 120; 지리B, 252)에서는 명확히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으로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다(그림 2의 좌측 지도).

4. 일본 지리교과서 속의 한국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한일교류 담론

1) 생활 및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집중 조명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지역지리 내용 서술과 달리 일본 지리 교과서에서는 다른 지역을 서술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무엇이 유사하고 차이가 나는가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생활 및 문화와 관련한 내용의 서술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자연환경과 관련된 생활, 한국의 상징과 사상, 한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 다른 한국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 지리교과서에 동원되는 자연환경은 그 고유의 프로세서나 메카니즘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동원되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활과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겨울철 난방을 위한 온돌과 장기간의 보존을 위해 배추에 고춧가루를 넣어 발효시키는 김장(김치)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삽화와 함께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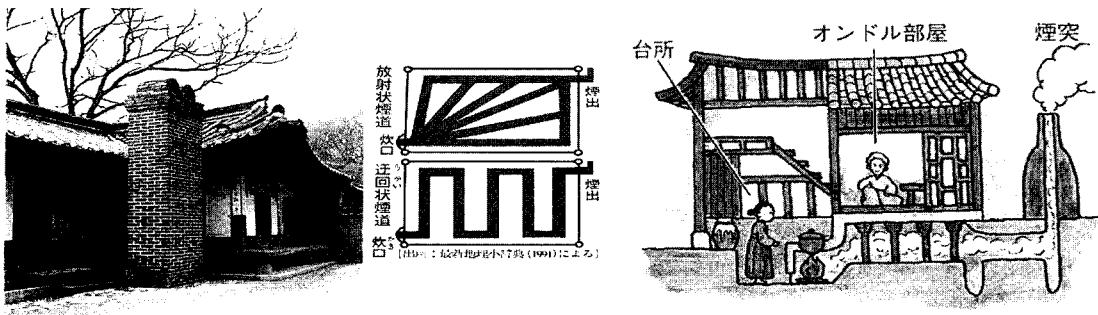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전통가옥과 온돌의 사용

(출처 : 지리A, 二宮書店, 116; 지리A, 帝國書院2, 117)

온돌의 경우 한국의 전통적 가옥에서 아궁이를 통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그림 3), 현대적인 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서 마루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치의 경우 지역적 특색을 기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의 가정에서는 짐장을 하지 않고 김치 가게에서 사서 먹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까지도 기술하고 있다(그림 4).

“온돌이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겨울의 추위에 대비한 독특한 마루 난방시설이다. 방의 마루 아래에 돌을 쌓고 연기와 열기의 통로를 만들고,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마루 전체가 따뜻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주거의 방 배치에 작은 부엌, 작은 창, 낮은 천정,

두꺼운 벽 등의 특징을 초래했다.”(지리A, 清水書院, 99).

“일본인에 있어서 한국요리라고 말하면, 우선 김치 등을 듣나. 김치는 배추와 무우를 재료로 해서, 그것에 마늘, 파, 생강 등을 첨가하고, 소금, 젓갈, 고추 등에 조미료를 첨가해서, 발효시킨 보존식이다. 한국의 겨울은 추위가 혹독해서 신선한 야채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필수품이고, 식탁에 없어서는 안된다. 지방과 가정마다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이 다르고, 각각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한 궁리를 한다. 일반적으로 북쪽 지방의 김치는 젓갈도 연하고, 맛도 담백해서 담박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쪽 지방의 김치는 젓갈도 진하고, 어패류 등을 첨가한다”(지리A, 帝國書院2, 116).

한편, 한국에서 온돌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뿐만 아



그림 4. 가정에서 김치 만드는 모습과 김치 가게

(출처 : 지리A, 帝國書院2, 116; 지리A, 帝國書院1, 121)

나라 온돌을 통한 난방의 원리, 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옥의 구조, 그리고 한국의 주거문화와 일본의 주거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온돌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겨울의 추위에 대비한 독특한 마루 난방시설이다. 방의 마루 아래에 돌을 쌓고 연기와 열기의 통로를 만들고,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마루 전체가 따뜻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주거의 방 배치에 작은 부엌, 작은 창, 낮은 천정, 두꺼운 벽 등의 특징을 초래했다. 일본과 한국은 집에 신발을 벗고 오르는 공통의 주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마루가 견고한 온돌의 방과 일본의 부드러운 타다미 방에서는 정좌(바로 앉는 것)의 방법에도 차이가 나타난다.”(지리A, 清水書院, 99).

둘째,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한국의 정신세계를 표상하고 있는 문자로서의 한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국경일로서의 삼일절과 광복절,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으로서의 유교, 한국의 독특한 종교 경관으로서 불교(사원), 기독교(교회)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모두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만 한국은 자체 개발한 우수한 문자로서 한글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한자를 대신하여 한글을 고안하였으며, 모음과 자음의 합리적인 조합에 의해 완성된 표음문자로서 한국 특유의 문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지리A, 東京書籍, 123). 그리고 한국의 시장과

길거리에 걸린 간판을 보여주는 삽화를 제시하면서 이들이 대부분 한글과 로마자로 쓰여 있으며 한자는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지리A, 帝國書院, 114). 나아가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글과 일본어(가나)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그림 5).

“한반도의 역사를 조사해 보면, 반도 전체를 10세기에 통일하여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시대에 현대문화의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글로서 로마자와 동일하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표현한다. 한자를 사용하고 있던 한반도에 일본의 가나 문자와 같이 일반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보급했다.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족을 상징하는 한글과 일본의 문자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많은 한자가 일본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법 또한 일본어와 유사하여, 한국어와 일본어는 매우 닮은 점이 많다”(지리A, 二宮書店, 117).

한국, 중국, 일본이 전통적인 명절을 정하는 방법은 유사하지만, 국경일과 관련하여 삽화를 활용하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삼일절’과 ‘광복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그림 6). 한국의 국경일 중에 일본과 다른 것은 무엇이며, 일본이 이전에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과 어떤 관계있는지를 알아보게 함으로서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려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는 홍보하려는 다소 이중적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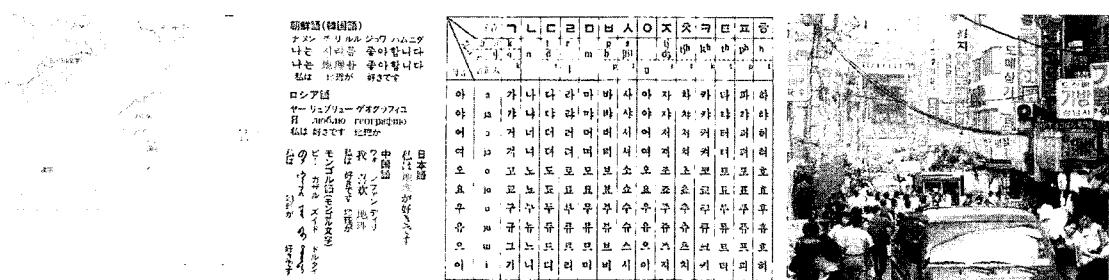


그림 5.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한글의 구조와 간판

(출처 : 지리A, 二宮書店, 115, 117; 지리B, 帝國書院b, 156)

(자리A, 二宮書店, 117).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특히 한국에서 장유유서, 동성동분 결혼금지, 남존여비 등과 같은 유교적 기풍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적 전통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현대사회로 올 수록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식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4세기에 한반도에 불교가 전파된 이후 각 왕조는 자주 육식금지령을 내렸지만 조선시대에는 육식이 공히 인정되어, 육요리법이 다양화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자리A, 教育出版, 98).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이 일본보다 훨씬 강하고, 연장자가 매우 공경을 받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있어도,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를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술을 마실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마시는 것이 예의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자리A, 帝國書院, 121).

한편, 불교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불교는 6세기에 한반도 남부의 백제로부터 일본에 전달되었으며, 이때 백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너와서 사원건축과 불상조각 등의 기술을 일본에 가져와 현재 일본의 토목건축과 불교미술의 기초가 되었다”(자리B, 帝國書院, 155)고 서술하고 하면서, 일본 문화의 원류의 일부가 한반도에 빚지고 있다고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지만 일본과 달리 외래 종교로서 기독교의 수용이 많이 이루어져 대항 담론으로 자리 잡아 개인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특한 경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리A(教育出版, 98)에 의하면, 논밭으로 이루어진 농촌 풍경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십자가를 하고 있는 교회 경관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민주화 운동, 노동자 지위 향상)와 문화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회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일찍부터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1月 1～2日	正月 ノルマル（旧正月）（旧曆の正月、前後1日休日）
15～17日	
3月 1日	三一節（1919년におきた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抵抗運動を記念する日）
4月 5日	植木の日（緑化運動を推進する日）
5月 5日	子どもの日
4月 8日	元・四四日（旧暦の4月8日）
6月 6日	志の日（英國の英雄をまつる日）
7月 17日	七・一の日（大韓民國憲法制定の記念日）
8月 15日	光武節（日本の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た記念の日）
8月 15日	夕タ（旧暦 8月15日の前後1日）
	合め休日（毎年かわる）
10月 1日	國軍の日（國軍創設記念日）
10月 3日	開天節（国体創設記念日）
10月 9日	ハングルの日（ハングルが國字として公布された日）
12月 25日	クリスマス（キリスト教徒が多いので公休日となっている）

このほか月に 1回「盆の日」があり、全員を対象으로門番(門番)が行われている。
＊は旧暦。国字の日は休日となる

1月 1日	元旦
旧暦 1月 1日	旧正月
3月 1日	三一節
4月 5日	植木日
5月 5日	子どもの日
旧暦 4月 8日	仏誕節
6月 6日	顯忠節
7月 17日	制憲節
8月 15日	光復節
旧暦 8月 15日	秋夕
10月 3日	開天節
12月 25日	聖誕節

그림 6. 한국의 명절과 국경일

(출처 : 자리A, 清水書院, 101; 자리A, 二宮書店, 117)

가 널리 보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의 근대화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권위주의로부터 평등주의, 남존여비로부터 남녀평등, 가족중시로부터 개인중시로 생각하는 방식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세대간의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지리A, 東京書籍, 122).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의·식·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표상과 상징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공통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의복의 차이에 대해서, 일본의 키모노는 원피스인 반면 한국의 한복(치마저고리)은 튜피스로서 방한과 기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키모노가 원피스인 반면,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은 소매가 좁은 저고리와 바지와 치마의 형태를 한 튜피스이다. 한복은 저고리 위

에 띠를 매어 상반신을 둘러쌈으로서 방한과 기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지리A, 清水書院, 99)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음식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전통적으로는 앉아서 식사하며, 젓가락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사성이라면, 한국이 국물 문화에 의해 주로 숟가락을 사용하고, 그릇을 들지 않고 식사하며, 육류(불고기) 문화가 발달되었다면 일본은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며 어류(회, 초밥) 문화가 발달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지리A, 清水書院, 98).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젓가락을 놓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세로로 놓는다면, 일본은 가로로 놓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불고기와 관련하여 도구로서 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림 7).

한편, 최근에는 세계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문화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



그림 7.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일본과의 차이

(출처 : 지리A, 教育出版, 96; 지리B, 帝國書院b, 154, 155)



그림 8. 한국의 PC방과 포장마차거리

(출처 : 지리B, 帝國書院b, 159)

적 반감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거리와 가게에는 일본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패션, 의복 등이 유사하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장벽은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지리B, 帝國書院, 159).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표상하는 사례로서 pc방과 길거리에 음식을 놓고 파는 다양한 형태의 포장마차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8).

2) 문화 교류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부여한 한일관계 담론

한일 교류와 관련된 내용은 자연환경, 생활 및 문화, 경제 등을 고찰한 후 가장 마지막에 한일 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일 합병에 의한 식민지 지배 시기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교류에서 시작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교류,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교류에 주안점을 옮겨가면서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차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동시에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별로 한일 교류와 관련한 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정치·경제적 측면의 교류에서 문화적 측면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지배와 현재의 무역불균형에 의한 반일감정, 한일기본조약(1965)에 따른 경제 원조 등의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 록그룹의 공연과 일본 영화의 상영, 그리고 한일월드컵의 공동 개최 등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문화 교류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그림 9).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과거의 일본의 역사적 반감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둘째, 한일 교류와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다소 자학적인 내용도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면, 일본인도 이웃 국가로서의 한국에 관해서 역사적 배경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하며(지리A, 二宮書店, 119), 20세기 전반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여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한글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조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뭉개버린 행위를 하였다(지리A, 第一學習社, 115; 지리B, 帝國書院, 160~161). 이로 인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문화의 궁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반성적이고 성찰적 기술이 많이 보인다.

“수학여행에서는 그 지방의 고교생과의 교류회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인사 정도의 단어 밖에 알지 못해도, 매우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고, 귀국이 괴로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한일관계의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림 9.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의 사례

(출처 : 지리A, 東京書籍, 122; 지리B, 帝國書院b, 160)

(지리A, 帝國書院, 124).

셋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차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일본의 긍정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의 코리아타운과 지역별 이들의 거주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과거의 불운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11).

“일본 사회에는 직업적 차별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왔다. 재일한국·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반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 올려 가는 것이 첫걸음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지리A, 二宮書店, 119; 지리B, 二宮書店, 263).

넷째,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일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긴밀해지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내용도 일부 소개하고 있다. 2000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이 만나 포옹하는 사진(지리A, 帝國書院2, 118; 지리A, 東京書籍, 123)과 더불어 시드니(2000) 및 아테네(2004) 올림픽에 통일기를 손에 들어 입장하는 한국과 북한 선수단 사진(지리A, 帝國書院1, 125; 지리A, 第一學習社, 115; 지리B, 帝國書院a, 151; 지리B, 帝國書院b, 161)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림 12).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독도 영유권과 관련 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교과서에서만 피상적인 수준에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일 양국 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과제도 있지만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가 우선되어



그림 10.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을 통한 한일교류

(출처 : 지리A, 二宮書店, 119; 지리A, 帝國書院1, 124)



그림 11. 오사카의 코리아타운과 재일한국·조선인

(출처 : 지리A, 二宮書店, 119; 지리A, 東京書籍,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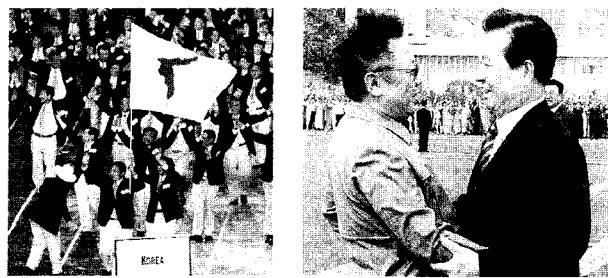


그림 12. 긴밀해지는 남북교류

(출처 : 지리A, 帝國書院1, 125; 지리A, 帝國書院2, 118)

야 한다”(지리B, 二宮書店, 263)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이는 긴 교류의 역사 중의 일부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과거를 서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지리B, 帝國書院b, 161)”고 기술하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지리A 및 지리B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관련한 내용의 설정 근거를 검토한 후, ‘한국의 자연환경과 영토 문제’, ‘한국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한일 교류’라는 두 개의 범주를 통하여 한국과 관련한 담론을 분석한 것이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리A 및 지리B 교과서에 ‘근린제국(이웃국가)’이라는 단원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린제국이라 함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 2개 또는 3개의 국가를 선택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한 단원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지만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근린제국으로 선정된 사례 지역으로 대부분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며, 일부 교과서에서 러시아 대신에 필리핀과 타이를 선정하여 다루고 있다. 선정된 근린제

국에 대한 학습의 시퀀스는 대부분이 한국을 가장 먼저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중국이 먼저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 지리적 위치나 관계적 위치로 볼 때 보다 중요하였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이웃 국가로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정된 근린제국의 각 국가를 다룰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문화를 일본과의 유사성과 차이의 측면에서 고찰하도록 하여 이를 이해·존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와 같은 권고 사항에 따라 사례 지역과 귀속(일본) 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생활·문화의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근린제국과 관련한 지역학습이 생활·문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교과서에서만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프로세서나 메카니즘에 대한 기술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며, 일본과의 유사성과 차이는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로 인해 지형보다는 기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으며, 여름기온보다는 겨울기온에 대해 더 자세하기 기술하고 있다. 이는 지형보다 기후가 생활방식의 차이에 더 영향을 주며,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겨울기온이 상이한 생활방식이 초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그들 영토와 관련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북으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이며,

남쪽으로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문제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한국과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언급하고 있다. 북방영토는 단호하게 자신의 고유의 영토라기 표기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와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접속구역으로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교과서는 본문 서술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영토로 명기하거나, 지도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포함된 것으로 표기 한 사례도 있다.

한국의 생활 및 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생활, 한국의 상징과 사상, 한국의 고유한 생활·문화 등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한국의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과 문화는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온돌이 가옥구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보존을 위해 배추에 고춧가루를 넣어 발효시키는 음식으로서의 김치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상징과 사상으로서는 독창적 문자인 한글, 국경일로서의 광복절, 전통적 사상으로서의 뿌리깊게 남아 있는 유교, 종교 경관으로서 불교(사원)와 기독교(교회) 등에 대해 일본과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독특한 의복(한복), 음식(김치, 숟가락과 젓가락, 쌀과 국, 불고기와 가위), 주거(온돌)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유사성과 한국의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서 pc방과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일 교류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합병에 의한 식민지배 시기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교류에서 시작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교류,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교류에 주안점을 옮겨가면서 서술되어 있다. 현재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차별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앞으로의 역할을 조명하는 동시에 한일교류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린제국과 관련한 학습의 내용이 주로 생활과 문화에 초점을 둘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된 지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사례 지역과 일본과의 상호 비교를 통한 유사

성과 차이에 초점을 둘으로써 지식과 이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타심과 공감적 이해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일본 지리 교과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은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대안적인 지역학습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린지역과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서 제국주의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어 이타심과 공감적 이해에 위배될 수 있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주

- 1)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 관련 내용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의 지리 교과서가 우리나라와 달리 생활과 문화와 관련한 내용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지리교과서에는 주로 일본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만을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한일 교과서의 비교연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지리가 사회과 교육과정에 편재되어 있지만,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지리가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에 편제되어 있다.
- 3)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문화의 선정 기준은 ① 세계 각 지역의 교류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문화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② 민족을 단위로 독특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 ③ 현대세계의 각 지역의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다.
- 4) '지구적 제과제에의 대처'에서 제과제의 선정 기준은 ① 현대의 지구적 과제가 인류공통의 과제로서 부상해 오고 있는 것 ② 지구적 과제의 출현에 지역성이 나타나고, 그 해결에 있어서도 지역성의 관점이 필요한 것 ③ 지구적 과제는 글로벌적 관점과 로컬적 관점 모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다.
- 5) '현대세계의 지리적 인식'은 ①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면서, 21세기의 일본에 있어서 대처가 요청되는 과제인 것 ② 고교생의 단계에서 당면하거나, 그것에 대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 ③ 지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 6) 사례 국가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국가 규모의 지역을 지지적으로 파악하는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에 적절한 국가일 것 ② 사례로서 취급한 국가 이외의 국가의 지역성을 학생 자신이 조사하도록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 등을 배우도록 하는 것 ③ 세계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국가가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국토면적이 큰 국가만 채택하지 않도록 조합할 것 ④ 학생의 특성과 학교 소재지의 사정 등(예를 들면, 자매도시 제휴를 하고 있는 지역이 속한 국가, 지역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 등)에 배려해서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⑤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 등이다.
- 7) 사례지역으로 채택된 근린제국은 일본과 비교·관련시켜서 그들 국가들의 지역성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때, 근린제국의 생활·문화는 역사적인 사회환경과도 깊게 관련되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주의시켜서, 각 국가의 생활·문화를 이해·존중하는 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의 생활·문화를 절대시하면서 다른 국가의 생활·문화를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화에 따른 근린제국과 일본의 관계를 파악시키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연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성을 고려해서 일본과 각국과의 교류의 태도를 고찰하고, 과거, 현재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로 눈을 돌려, 지금까지 어떤 점을 배려했고, 어떤 점을 배려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관해 고찰시키려고 하고 있다.
- 8) 二宮書店의 경우 지리A와 지리B를 모두 출판하였는데, 지리A와 지리B의 한국과 관련한 단원의 체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지리B의 내용이 지리A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9) 쿠릴 열도와 일본의 홋카이도가 만나는 해역의 4개 섬인 쿠나시리(國後島), 에토로후(擇捉島), 하보마이(齒舞諸島), 시코탄(色丹島)을 일본은 북방영토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옛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한 곳으로 일본이 과거 소련, 현재는 러시아에 대해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곳이다.
- 10) 우리에게는 중국식 명칭인 조어도(島嶼群) 문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11) 그림 2의 오른쪽 지도와 같이 아래 독도를 지도 상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감한 사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의 좌측 지도와 같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것으로서, 자신의 영토에 대한 의지가 다소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文献

- 세계일보, 2007, 美·中·日 교과서 속 한국경제.
- 손용택, 1996,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속의 한국–지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27, 135-148.
- 손용택, 1997,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비친 한국, *지리학연구*,” 31, 1-18.
- 손용택·박선미, 2002, “한국 사회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비친 미국,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비친 한국,” *사회과 교육*, 41(1), 5-35.
- 이경한, 2004,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379-394.
- 이진우, 2006,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규, 2004, “일본 지리교과서의 한국지리단원 내용의 특색 연구 : 1993(평성5년), 2003(평성15년)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리과교육*, 제7호,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227-24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형기주, 2002,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文部省, 1999, 高等學校 學習指導要領 解說—地理歷史編—, 文部省.
- Apple, M. and Christian-Smith, L., (eds.), 1991, *The Politics of the Textbook*, Routledge, New York.
- Apple, M., 1979, *Ideology and Curriculum*,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 Atkinson, J., 1992, How do geography textbooks portray women of developing countries?, *Teaching Geography*, 17(4), 179-180.
- Bar-Gal, Y., 1994, The image of the “Palestinian” in geography textbook in Israel, *Journal of Geography*, 93(5), 224-232.
- Bennett, S., 1996, Discourse Analysis: A Method for Deconstruction, in Williams, M., (ed.), *Understanding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he Role of Research*, Cassell, London, 162-171.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Cambridge.

- Gilbert, R., 1984, *The Impotent Image: reflection of ideology in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The Falmer Press, Lewes.
- Graves, N., 2001, *School Textbook Research : The Case of Geography 1800-2000*,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London.
- Hicks, D., 1979, Bias in Geography Textbook, Working Paper No. 1., London: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Krippendorff and Klaus, 1980, *Content Analysis*, Sage, London.
- Lidstone, J. G., 1992, In defence of textbooks, in Naish, M., (ed.), *Geography and Educ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Marsden, W. E., 1988, Continuity and change in geography textbook: perspective from the 1930's to the 1960's, *Geography*, 73, 327-343.
- Marsden, W. E., 2001, *The School Textbook: Geography, History and Social Studies*, Woburn Press, London.
- Wright, D. R., 1979, Visual image in geography textbooks: the case of Africa, *Geography*, 64, 205-210.
- Wright, D. R., 1988, Applied textbook research in geography, in Gerber, R. and Lidstone, J., (eds.), *Developing Skills in Geographical Education*,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f Geographical Education with Jacaranda Press.
- Wright, D. R., 1988, Images of Australia in Japan textbook, *Geographical Education*, 6(1), 43-45.
- Wright, D. R., 1996, Textbook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in Williams, M., (ed.), *Understanding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he Role of Research*, Cassell, London, 172-182.

교신 : 조철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 경북
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kcho@knu.ac.kr, 전화: 053-950-5857)

Correspondence: Chul-Ki Ch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e-mail: ckcho@knu.ac.kr, phone: +82-53-950-5857)

최초투고일 08. 08. 21
최종접수일 08. 09. 22